

##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사에 입후보한 이영귀입니다.

40여년전 KLPGA는 아주 작은 조직으로 출발하였으며,  
1991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시절에는 골프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에게 그다지 희망적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전 CNN에서 세계 최고라고 발표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여자골프가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올림픽금메달을 획득하며 다시한번 KLPGA가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그 어떤 외교관의 업적보다  
더 비중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회원들의 노력과 땀방울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본도 없었고 인재도 부족했으며 사회적 여건도 열악했던 상황에서  
오직 헌신과 열정으로 온몸을 던졌던 선배언니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꿈을 향해 전진했던 동료들과,  
낮 설고 말 설은 곳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은 후배들.....,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 있기까지 도와주셨던 분들과 현재도 도움을  
주고 계신 모든분 들게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1.기량은 뛰어난 KLPGA.
- 2.투어 아니면 레슨 밖에 할 수 없는 프로들의 생계환경.
- 3.우리 회원들에게 임원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의 의문점을 이렇게 바꾸어 봅시다.

첫째, 기량만 뛰어난 KLPGA에서 기량과 리더십을 겸비하여 골프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KLPGA로.

둘째, 투어와 레슨에만 국한 되던 환경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하여 골프장  
관련 종사자와 교육계에 교육자, 그리고 연간 30조가 넘는 골프산업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환경으로 변화시켜 봅시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사를 선출할 때에도 KLPGA의 내실 있는 발전과 더 많은  
회원들의 성장을 위해 고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표를 행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손 으로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3 월 16 일

성 명 : 이 영 귀

